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계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 CHINA-JAPAN-KOREA SERVE INITIATIVE 2018

## 참가자 소감문

### 1. [참가학생1\_언더우드국제대학]

#### 가. 프로그램 수행내역



[사천 지진 유적 방문]



[CJK SERVE 2018 현수막 사진]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재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Institute for Disaster Management and Reconstruction 방문]



[대나무 공예 완성 후 장인 분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계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마을 대나무 장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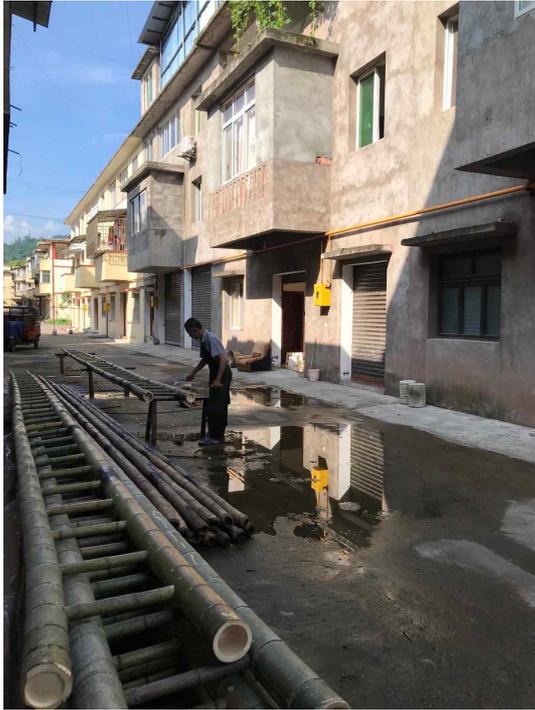


[공식 활동 종료 후 자유 관광 사진]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제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대나무 사다리 장인 분 작업 장]

[마을 아이들]



[대나무 장인 분들과 대나무 공예품]



[조금 낡았지만 정겨웠던 마을 골목]



## 나. 프로그램 참가 소감

2주라는 시간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쏙살같이 지나갔다. 처음 새벽바람을 맞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친구, 언니오빠들, 그리고 지도 선생님과도 어색했는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탔을 땐 연대 사람들뿐 아니라 SERVE 2018에 참여했던 학교도, 국적도 다른 친구들과 어느새 많이 친해지고 정들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을 그 친구들과 마주하며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SERVE 2018을 통해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추억을 쌓았던 것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가 배우고 얻은 것은 소중한 인연들 뿐만은 아니었다.

장시간의 비행과 우여곡절의 경유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던 첫날이 지나고, 다음날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사천 대지진 유적을 방문했다. 지진 유적은 놀라울 정도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내가 10년 전 지진이 일어났던 장소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섬뜩했다. 휘어진 건물들, 깨진 유리창, 끊어진 다리, 찌그러진 차, 원래의 형태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되어버린 학교 등은 해도 쨍쨍하고 구름도 예뻐던 그날의 날씨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어 마치 고요 속의 공포처럼 느껴졌다. 2008년, 내가 초등학생일 때 뉴스로만 막연히 접했던 지진의 참해가 처음 입체적으로 다가오던 순간이었다.

사천 지진에 대해 배우고 Place Making, Asset Mapping, Co-Creation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하고 나서 우리는 세 마을로 나누어져 각자가 속한 마을로 이동했다. 우리가 가는 Hekan 마을이 사천대와 가장 가까워서 빨리 도착했다. 프로그램의 전체 주제 자체도 '고령화'이고 시골 마을이라 한국처럼 당연히 노인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어린 아이들도 많고 중장년층 분들도 꽤 있어서 놀랐다.

마을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획했던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라신 네 명의 대나무 장인 분들과 함께 대나무 제품을 공동 구상하고 제작하는 Co-Creation 활동으로 지역문화 부흥 및 보존에 기여하며 세대 간 소통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내가 이론적으로 Active Aging, Place Making, Asset Mapping, 그리고 Co-Creation을 배울 때는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에 얼마나 부합할 것이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봉사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가까웠으므로 우리가 하는 활동이 대상 마을의 실질적인 문제를 선 탐색하고 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이론의 학습과 적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내가 느끼기에 다소 억지스러웠다. 내가 참여하는 활동의 의미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활동 의욕도 저하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해내고 토의를 이끌어가는 다른 친구들을 보자 나도 동기부여를 받고 열린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우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만 했을 뿐, 대나무 제품의 실제 제작은 온전히 대나무 장인 분들의 몫이었다. 사실 장인 분들께



서는 우리가 구상한, 심지어 그분들이 원래 제작하시던 제품과는 전혀 다른 형태와 디자인을 가진 제품 제작에 굳이 참여하실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작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토의하고 원형 모델을 만들며 고심하시는 모든 과정에 즐겁고 열정적으로 임하셨다. 그런 장인 분들을 보며 나 또한 스스로의 소극적 태도를 반성하고 더 열심히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드디어 완성한 대나무 공예품을 보면서 봉사라는 것 자체가 어찌면 거창한 의미가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인 분들과 친구들과 함께 대나무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면서 진정한 봉사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봉사라고 하면 나는 항상 봉사자들이 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떠올려왔지만, SERVE 2018을 통해 봉사란 일방적 수혜가 아님을 또다시 체감했다. 또한 이번 활동으로 처음 직계 가족이 아닌 노인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세대 간 갈등과 소통 부재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변화를 이끌어가는 과정을 응원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성세대, 그리고 기성세대를 소위 '꼰대'와 동일시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의 고정관념 타파 및 기성세대의 삶의 경험에 대한 존중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세대 간 열린 소통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고령화 문제와 세대 갈등에 대한 현명한 해결방안을 협력적으로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 간 머물렀던 Hekan 마을과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 간의 분위기였다. 나에게 익숙한 서울은 차갑고 고독하고 딱딱한 도시였지만, Hekan은 말랑하고 부드럽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물론 이런 분위기의 차이는 단순히 도시와 시골이라는 구분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대나무 장인 분들과 숙소 가족 분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언어가 거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낯선 타인인 우리를 참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덕분에 나는 그곳에서 이방인이 아닐 수 있었다. 첫 날 인터뷰 이후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신 대나무 사다리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셨고, 매일 식후땀 간식을 사러 갔던 마트 아주머니께서도 우리가 숫자 계산이나 이해가 느렸음에도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셨다. 숙소 아주머니께서는 타지에서 온 우리가 음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매일 먹는 식사가 질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과일과 식사를 챙겨주셨다. 마을 아이들 역시 우리가 다른 나라 혹은 지역에서 왔으며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를 좋아해주었다. 특히 나와 많이 친해졌던 숙소 아주머니의 딸은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 내 것도 같이 사서 주거나 간식을 나누어 먹는 등 항상 본인의 것을 나와 나누었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매일 가지고 놀던 하나밖에 없는 토끼 인형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는 정말 울음이 날 뻔했다. 내가 한 것은 함께 놀아준 것 밖에 없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어서 사소한 순간순간들이 늘 감동이었다. 마을을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계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던 부분도 정든, 그리고 어쩌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과 헤어  
져야 한다는 점이였다.

SERVE 2018이 올해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던 시간들로 기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  
동력은 바로 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다. 한국, 중국, 일본인이었던 우리는 다르면서도  
비슷했고 비슷하면서도 달랐기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아무리 책과 영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정치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배운다 하더라도 직접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체험하는 진짜 모습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한 번도 찡그린 얼굴로 서로를 대한 적이 없었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했다. 고마웠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다 꼽을 순 없지만 함께한 모든  
시간이 즐거웠다. 인향만리(人香萬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  
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도 남는다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사실 책으로 읽었  
을 땐 잘 와 닿지 않던 말이었는데, SERVE 2018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느끼고 배운 점  
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려고 하니 저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활동에 참가  
하기 전의 나는 타인을 사قم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 또한 멀리 가며 깊이 있는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반기문지속가능발전센터-사회참여센터-계중원보건개발원

Institute for Global Engagement & Empowerment at Yonsei University

Ban Ki-moon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Center for Social Engagement • Yonsei Institute for Global Health

## 2. [참가학생2\_시스템생물학과]

### 가. 프로그램 수행내역

미야오샤 마을의 경우 초반에는 그룹을 나누어 어떤 디자인으로 place-making을 할 지 나누었고, 결국 각 그룹만의 특성을 가진 디자인 네 개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통된 테마를 가진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각 그룹마다 지정된 어르신들과 함께 디자인을 1:1로 확인받고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논의하면서 직접 paving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 나. 프로그램 참가 소감

초반에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을 하지 못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진행이 중국어로 진행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교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고생하면서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생각도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선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책임감에 또 한 번 배움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이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노인분들 각각 다른 배경과 다른 specialty를 가지고 계셨고, 지식보다는 지혜를 본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Serve하는 것 자체는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以聽得心, 즉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들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인품이 다르듯이 서로 다른 언품과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주어 이해를 할 수 있었고 그로인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협하여 맞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CJK Serve 프로그램을 통해 인내하는 방법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쟁에 치우친 사회에서 눈치보며 살던 저는 프로그램 도중 며칠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주변 눈치를 보고 몸이 불편해도 쉽게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친하지도 않았을 때, 마을 친구들이 진심으로 걱정해주었고 그들의 진심어린 걱정을 통해 저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대로 쉬지 않고 눈치를 보았다면 아마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저는 낯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진심과 걱정이 저에게 인내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기다릴 때 기다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며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쉬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마음의 위안'이었고 앞으로도 자주 기억날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14일 하루하루 중 단 하루도 허투루 된 날이 없었으며, 여전히 하루하루 무엇을 했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이 납니다. 아쉬움도 많고 후련함도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만큼 깊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고, 기억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소중한기에 이 마음은 늘 존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14일 동안 행복만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